

아황산소다 국산화 급진전

93년 기점으로 90%이상 국산화 ... 수요는 연평균 10%증가

아황산소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93년을 기점으로 국산화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염·안료중간체와 사진현상액 등에 주로 사용되는 아황산소다는 93년 이전에는 수입이 50% 이상을 차지했으나 93년을 기점으로 수요가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아황산소다 수요는 92년 1000여톤, 93년 1100여톤, 94년 1200여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은 92년 650톤, 93년 720톤에서 94년에는 1100여톤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아황산소다 공급추이							(단위 : M/T)
구 분	1991	1992		1993		1994	
	수 량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생 산	570	650	14.0	700	7.7	1,100	57.1
수 입	1,440	1,510	4.9	1,240	▽18.0	200	-
합 계	2,010	2,160	-	1,940	-	1,300	-

자료) CRI

이같은 국산화비중 증가는 그동안 주 수입국인 일본과 독일 등에서 부산물 형태로 생산돼 왔으나 이들 국가에서 고지탈색용 등으로 자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출량 감축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수요기업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수입량은 92년 500여톤에서

93년 300톤으로 감소한후 94년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1년이후 한때 중국산이 증가했으나 공급선 확보 및 내수량 미미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일본산과 독일산은 부산물차원의 생산으로 인한 그레이드의 하락 및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생산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독점생산기업인 부흥산업은 1200톤 생산능력대비 92년 620톤, 93년 700톤에서 94년에는 1100톤의 생산이 예상되고 있다.

부흥산업은 당초 자가소비를 위한 사진현상액 제조용으로 생산을 시작했으나 국내 수요증가 및 수입량 감소로 생산능력을 확대해 현재는 내수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당분간 신증설은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황산소다는 Kg당 570원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93년이후 가격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아황산소다는 폐수처리용과 아크릴사 원료·사진현상액처리·식품첨가물 등에 사용되며 향후에는 PVC원료의 첨가제와 열병합발전소의 보일러 수질조절제 등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등 신규수요로 인한 수요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1/9>

